



주간

대학교육

598

2010년 6월 28일

The KCUE Weekly

발행인 : 이기수 / 편집인 : 성태제 / 발행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21-904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01 KGIT상암센터 11층
 대학홍보 안내 및 문의 전화 : 02 · 6393 · 5285 팩스 : 02 · 6393 · 5280 이메일 : weeklynews@kcue.or.kr 홈페이지 : www.kcue.or.kr

대교협 주간 주요 활동

● 교육협력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2010. 6. 18일(금) 이화여자대학교 아령당에서 교육협력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7차 회의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 준수 권고, 초·중등교육-대학교육의 연계, 의학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 등을 중심으로 교육 전반에 관해 일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논의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협력위 위원장), 권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 민경찬 연세대 교수, 설동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성태제 대교협 사무총장, 신금봉 부산시 민사회교육연합 상임대표, 이기수 고려대 총장(대교협 회장), 이옥식 한가람고 교장, 함성익 이천남초등학교 교장 등 협력위원 10명과 백정하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하였다.

● 2010년 입학사정관제 선정대학 워크숍



대교협은 2010. 6. 28(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2010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직무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총 60개 선정대학(선도대학, 우수대학, 특성화 모집단위)에서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워크숍은 이주호 교과부차관, 성태제 대교협 사무총장의 인사말,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교과부), 입학사정관제 관리운영계획안 발표(대교협)로 진행되었다.

회원대학 소식

●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총장 소병욱)는 22일 대구가톨릭대 테크노센터에서 에너지관리공단 대경지역에너지기후변화센터(센터장 이선업)와 그린캠퍼스 구현을 위한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녹색생활 정착을 위한 그린캠퍼스 추진,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의 실천 및 문화 확산,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한 친환경 캠퍼스 조성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대학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 모색, 신축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그린캠퍼스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개발 및 지원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목포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총장 고석규)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전남 무안군 목포대학교 본관 1층 홍보실에서 고석규 총장, 박종환 목포대학교 F1대회 지원단장을 비롯해 이상면 전남도 정무부지사, 박종문 F1사무총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 F1코리아 그랑프리 성공개최를 위한 목포대학교 F1대회 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지원단은 F1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원 봉사 참여와 각종 지원 활동 등 지원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목포대학교가 지역 중심 대학으로서 역할과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F1대회 성공개최는 물론 지역 내의 관련 산업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조직된 것이다.

이날 출범식은 식전행사인 F1대회 홍보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출범식 의의 설명, 개회사, 격려사, 지원단장 임명장 수여 및 지원단 소개 등의 본 행사에 이어 F1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목포대학교의 지원 내용 소개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이광자)는 6월 27일(일)부터 7월 23일(금)까지 본교 바롬교육관에서 제 12회 바롬국제프로그램(BIP: Bahrom International Program, 이하 BIP)을 개최한다.

서울여자대학교의 BIP는 매년 여름방학 중 4주 동안 미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교환대학 학생들과 서울여대 교환학생 파견 예정 학생들이 함께 영어로 생활하며 공부하는 한국학(Korean Studies) 프로그램으로 오전에는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이와 관련된 체험학습으로 이루어진다.

서울여자대학교는 현재 15개 국가 71개 대학교와 교환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2010년에는 134명의 교환학생을 파견하고, 120명의 교환학생을 유치할 예정이다. 이 중 영어권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BIP를 실시하고 있고, 1999년 1차 BIP를 실시한 이후 12회가 되는 2010년까지 약 1,000여명의 외국인 학생 및 교수, 그리고 서울여대 재학생들이 참여하였다.

2010년도에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러시아 외국학생 및 교수 58명, 서울여대 영어권 파견 교환학생 61명, 진행 스텝과 강사 및 프로그램 참여자 98명으로 총 217명이 프로그램에 함께할 예정이다.

●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총장 서거석)가 21일 오후 3시 국가핵융합연구소(소장 이경수)와 협약을 체결하고, 미래 녹색 에너지원이 될 핵융합과 녹색성장과 관련된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시책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미래 녹색 에너지 분야의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대 서거석 총장과 조순구 부총장을 비롯해 이남호 산학협력단장, 원용찬 대외협력실장, 홍봉근 고온플라즈마응용연구센터장 등 전북대 주요 관계자들과 이경수 국가핵융합연구소장을 비롯해 유석재 융복합플라즈마연구센터장, 조성윤 사업관리실장, 권은희 홍보협력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연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통한 창의적인 인재양성체제를 구축해 녹색에너지의 미래비전인 핵융합에너지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연구혁신 역량제고와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과 연구인력 교류,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학술 및 기술정보를 교환하기로 했으며, 특별 공동협력 분야로 핵융합 및 녹색성장 관련 연구를 함께 수행하기로 했다.

서거석 총장은 “연구경쟁력이 전국 최고 수준인 우리 전북대는 현재 국내 최초이자 세계적으로 5번째인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를 지어 세계적인 고온플라즈마 연구기관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양 기관이 협력하게 된 것은 향후 플라즈마 기술의 상용화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우리나라가 플라즈마 분야에서 세계 일류수준으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총장 전호중)가 '글로벌 IT인재 활용사업' 대학으로 선정돼 2년 동안 사업비 3억4천8백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식경제부는 6월 24일 IT인력양성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글로벌IT인재활용' '대학IT연구센터' 'IT융합 고급인력과정' '서울어코드 확산' 등 4개 사업의 신규과제 수행자로 대학 24곳을 선정했다. 조선대학교는 광주·전남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지원대학에 선정됐다.

'글로벌 IT인재 활용사업'은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여 국내 유학 및 산업체 연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선대를 비롯한 경희대, 배재대, 성균관대 등 9개 선정 대학은 해당 외국인 유학생의 석사과정 학비를 보조받는다.

조선대학교는 네팔, 파키스탄,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스리랑카, 필리핀 등 아시아권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여 참여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을 실시하여 산학연계를 통한 친 한국 성향의 외국인 산업인력 양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즉 외국인 유학생들을 지역의 광통신부품 제조업체인 에프엔엔(주)(대표 주양진), 무선통신기기 개발·제조업체 알에프유(대표 서장원)에서 6개월 동안 현장연수를 추진하고 컴퓨터공학과 대학원과 정보통신공학과 대학원 공동의 맞춤형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역 IT업체가 필요한 개발 인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책임교수인 모상만 교수(전자정보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는 "IT 서비스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 해외진출 유망국가 출신 유학생을 유치하여 지방 IT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부족 심화 현상을 해소하고 IT개발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오거돈)가 오는 2012년 여수엑스포를 대비한 국제적 홍보지원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해양대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IMO)의 'STCW(해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전면개정협약 채택을 위한 당사국 외교회의를 통해 여수엑스포 홍보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 외교회의는 IMO 미트로폴로스(Mitropoulos) 사무총장과 STCW 협약 134개 당사국 대표 및 기타 국제민간기구(NGO) 대표들이 참가하는 범세계적인 회의이다.

이번 외교회의 기간 중 한국해양대는 현재 '1학기 원양항해 실습(5.18~6.29)' 중 필리핀 마닐라에 기항한 '한바다호'를 이용, 각국 대표 및 현지인들에게 2012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바다호는 지난 21일 마닐라에 입항한 후 실습선내 세미나실 등을 활용해 '이동 홍보관'을 마련하고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의 홍보 팸플릿과 동영상, 기념품 등을 게시하여 여수 세계박람회에 대한 세계인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22일 저녁에는 이번 외교 회의에 참석한 미트로폴로스 IMO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국 대표들을 한바다호에 초청, IAMU 의장인 오거돈 총장 주최로 선상만찬회를 열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호 필리핀 주재 한국대리대사 등 현지 교민들과 현지에서 활동중인 한국해양대의 세계해양대인네트워크 동문 등도 100여명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또 '필리핀 스타' 방송 등 현지 언론들도 행사장인

한바다호를 방문해 열띤 취재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해양대 오거돈 총장은 “우리 대학 실습선 ‘한바다호’는 실습기간 동안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를 경유하며 외국대학과의 국제교류 협력, 2012년 여수 엑스포 홍보활동, 대학 동문 상호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등 기항지마다 뜻 깊은 행사를 치러왔다”며 “특히 이번 필리핀에서의 행사는 외교 회의 기간을 적극 이용한 만큼 단기간에 고효율을 얻을 수 있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해양대는 앞서 지난 22일에는 IMO와 공동으로 ‘국제승선실습센터(Global On-board Training Center, 이하 GOBTC)’를 설립, 이날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GOBTC는 세계적 수준의 해기사양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승선실습 기회를 실습선을 보유하지 않은 타국의 해기사 양성대학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IMO와 해기사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진해운국들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으로 이루어진다.

IMO는 GOBTC 설립을 위해 최근 한국정부에 10만달러의 지원금을 요청한 상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해양대학교가 대표로 참여하며 중국의 다롄해사대학과 러시아의 극동해양대학, 터키 이스탄불공과대학, 그리고 필리핀의 Jhon B. Lacson 해양대학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IMO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선박의 대형화와 첨단화, 전문화 및 선복량의 급증 등으로 오는 2015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2만7천여 명의 해기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세계 8위의 선진해운국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역시 해기사 수급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넘어 UN 차원의 국제기구인 GOBTC 설립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해양대학연합(IAMU)의 의장이기도 한 오거돈 한국해양대 총장도 그동안 여러 국제회의를 통해 세계해양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실습선의 공동 활용 방안과 GOBTC 설립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안해 온 바 있다.

● 한동대학교



한동대학교(총장 김영길)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권대봉)은 6월 18일(금) 오후 서울 청담동 소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회의실에서 학술·연구 교류 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동 협약을 통해, 대학생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및 운영, 학술·연구 증진을 위한 공동세미나 및 학술대회 등의 개최, 교육 및 훈련을 위한 학습 자료의 공동개발 및 연구, 연구 결과물의 공유, 자료 및 정보의 교류와 공동 활용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양 기관의 학술·연구 증진을 위한

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의성 있는 연구 주제에 관하여 실질적인 공동 협력연구 등을 추진함으로써, 이번에 구축되는 학-연 협력체제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재외동포학생 모국방문연수 실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금년도 재외동포학생과 해외입양인 9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와 모국의 발전상의 체험하는 모국방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모국방문연수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으로 6~8월 중에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전문성을 갖춘 10개의 대학에서 약 7일 동안 각각의 테마를 가지고 진행 된다.

○ 모국방문 연수프로그램*은 한국어 및 한국의 역사·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교류 및 홈스테이 등을 토대로 국내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는 교육적 효과 거양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 한국어 교육, 한국역사 이해, 학생교류, 홈스테이, 전통문화 체험, 한국대표 산업시설 견학, 역사유적지 답사, 한국유학정보 제공, 대학 방문 등

○ 연수생은 금년 4~5월 중에 89개 재외공관을 통해 동포사회에서 리더로서 잠재력을 가진 인재를 추천받아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되었으며, 선발되어 이 연수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는 항공료와 참가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고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국장(송기동)은 "해외의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국방문연수는 모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부심을 갖게 하고, 이들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의 중요한 국외인적자원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 교육과학기술부의 모국방문연수는 광복 60주년을 기념하여 2006년 부터 재외동포 자녀들의 민족 정체성 확립 및 모국 이해 교육의 필요성 도모를 위해 추진되어 온 해외에서 호응이 높은 사업으로, 지난 4년간 총 3,808명(2010년 참여인원 제외) 재외동포 학생들이 방문하여 모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올해 900명의 재외동포학생 모국방문연수를 마지막으로 내년 2011년 부터는 외교통상부에서 추진한다.

기사를
기다립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한국 대학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홍보하기 위한 채널이 되고자 국내
고등교육 현황 및 회원 대학 소식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대교협 영문 홈페이지에 제공합니다.
귀 대학의 정보를 홍보할 수 있도록 기사와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를 국문으로 보내주시는 경우 선별·번역 후
홈페이지에 게재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사 보내주실 곳: weeklynews@kcue.or.kr

지난 주간대학교육(국문) 보기:

<http://www.kcue.or.kr/>->대학교육소식->주간대학교육

회원 대학 소식(영문) 보기:

<http://english.kcue.or.kr/> ->

News on South Korean Higher Education->
Member Universities News

* 구독신청

대교협 홈페이지 내 대학교육소식 메뉴에서 신청
해주시면, 매주 1회 개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